

시 부문

연초록, 순정

- ‘죽녹’의 휘파람에 답함

민병훈

들어보았나요

하늘대는 뗏가지들 서로 부딪쳐 휘파람을 불던 곳
그대 처음 닿을 듯 말 듯 손끝에 느낀 바람의 촉감

사늘한 기운이 불을 스칠 적마다 저절로 발개진 볼
땃잎 사이를 통과한 햇빛에 손바닥을 담그려다가
서로만 결눈질하며 들키고 웃던 찰막했던 순간들

그해 담양의 봄, 뭉근하게 퍼지던 온기를요

또는
들어보았나요

연초록 잎새들로 아기자기하던 그 야트막한 비탈
흰나비 몇 서성대다 그늘을 찾아 숨죽여 앉던 곳

속살대던 바람이 어느 순간 제 숨을 고르고 나면
시리게 맑은 눈가에도 물빛은 점점 더 투명해져
죽녹의 피리음을 엮어 그 숲에 내던지던 순간을

그해 담양의 봄, 명울처럼 핀 가슴속 죽순을

다시
들어보았나요

숨 가쁜 출근길 전철 안에서 유튜브브 클립을 열다
무심코 마주치게 되는 대숲 속 푸른 창공을 열면

비로소 그대 꺾가에 와닿는 그해 숲 속의 밀어들
죽녹의 휘파람으로 사각대는 바람의 수줍음을
그대 귀에만 들리게 만든 머뭇거리는 고백을요

그해 담양의 봄, 둥그렇게 흐르던 구름처럼요

(그대가 제 인생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것처럼)



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시 부문 당선소감·심사평

시단 발전에 작지만 보탬 역할 ‘발현’

어설픈 꿈자리가 뒤송했었다며 갖 익은 김치 한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녀 앞에서 무얼 먼저 말해야 할까를 한참 고민하다가 비로소 꺼낸다는 게 “나 등단했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단면? 아마도 그건 제가 맞을 겁니다. (‘들꽃 같은 아내’를 향한 일종의 현사입니다)

느닷없는 당선소감 몇 줄을 쓰려다 기어코 잠든 강아지를 깨워 새끼만 두 눈을 한참 쳐다보곤 이내 웃었습니다. 그 만큼 착하다 착한 아이가 제 곁에 있어 주었다는 게 축복인지도 모르니까요.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현사이기도 합니다)

‘시와 지성’ 동인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학회’에서 시장이라는 타이틀로 누누이 “부끄럽지 말자”며 후배들을 다독거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백사’라는 이름을 갖고도 많은 인연들이 아직까지 이어져온 건 순전히 제 게으름과 무능을 너그러이 이해해 준 사람들 덕택이었나 봅니다. (생각해 보니 ‘생활도서관’ 시절도 있었습니다)



민병훈

제 가족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한 그 인연들, 동기들과 선후배 그리고 동인 내지는 동지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시를 쓰다가 죽는 사람이 비로소 진짜 시인이라고. 그 말을 실천하도록 하겠고요. 온라인에서도 기쁨을 함께 할 인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이름들 앞에도 수줍은 인사 몇 마디를 남겨놓을게요. 늘 부족함을 알고 늘 배우면서 늘 겸허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적어두려고 합니다.

항상 스승이었으며 심지어 더러는 반면교사 역할까지도 해온 대한민국의 모든 시인들에게도 약소한 보답을 드릴 수 있기를 감히 소망합니다. 시단의 발전에 미소하게나마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제 생을 걸겠다는 말씀입니다. 뽀아 주신 심사위원님과 신문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사를 표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설 부문 당선소감·심사평

관념 대신 몸에 밀착하는 소설 쓸터

습작 하는 동안 변비를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똥’을 누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압니다. 찜어 삼킨 음식물이 위를 거치고 장으로 흘러 서로 부대끼며 꾸역꾸역 내려가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세상 나오는 일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요. 묵묵부답인 것을 보면 야속합니다. 그럴 때 속담 하나를 떠올립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 쉰다”라는. 비유뿐 아니라 낱것의 의미로도 총철 같은 선인의 해학에 잠시 웃습니다. 시원한 마중물 한 바가지 마셨으면 하면서요.

글을 쓰는 일도 똥을 누는 일과 참 비슷합니다. 설익은 문장들이 뱃속에서 우르르광광 소리를 내다 어찌어찌 밀려 내려갑니다만 어렵게 소설이 되어도 언제 세상 빛을 볼지 모릅니다. 매끈한 황금똥을 꿈꾸며, 방귀 한 번, 정조라도 보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뿐입니다. 오랜 정체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지요. 첫 방귀는 생 에너지가 다시 흐른다는 가장 정직하고도 경이로운 신호라는 것들요.

마중물을 부어주신, 그래서 정후를 심어주신 심사위원님과 광남일보 관계자



차현숙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부지런히 글을 먹고 소화시키며 생산하겠습니다. 읽고 난후에는 말의 생기가 남아 몸 너머, 소설 너머, 우주를 상상하게 하는 황금 같은 소설을 쓰겠습니다. 저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소설을 공부했습니다. 지극히 소박한 돈으로 풍성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듣는 내내 그 점에 많이 감동했습니다. 문학만큼은 돈 묻지 않고도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념으로 수업을 이끌어 주신 남산도서관 소설창작반 박경희 작가님과 문우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설만 읽는 아내를 무용하다 탓하지 않고 귀하게 바라봐 준 남편, 해운 씨에게 사랑과 존경을 전합니다. 당신 그늘이 있어 편히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 부문 당선소감·심사평

배우 몸짓 대도약하는 활자처럼 읽혀

평론 투고작이 예년의 두 배 이상 많아 극적으로 12월 29일에야 전화가 울 줄 몰랐다.

축하해주신, 글을 가르쳐주신 모든 분을 구태여 호명하지 않았으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웠던 마음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시면 나도 멀리서 아내 숨을 보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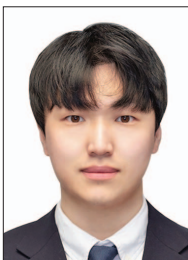
특히 당신, 나와 손잡고 이 길을 걷고 있는 네게 말이다.

여섯 번째 겨울을 함께 건너는 동안 무수한 탈락 소식에 조용히 감응해온 오직 한 사람.

나는 오늘을 빌려 감히 그에게 “소중한 건 언제나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만 같으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응원하고 싶다.

내가 무수히 굴며 살아왔더라도, 한 번만 사랑하는 이 앞에서 이계 진리인 양 교만하고 싶다. 그리고 “나를 구할 자는 오직 나뿐이지만, 때론 서로가 힘이 되었노라” 컷가에 읊조리고 싶다.

가능성을 봐주신 심사위원님과 광남일보 관계자, 문화부에 감사 인사가 늦



최류빈

었다. 당초 문학평론을 전공했지만 공연 비평으로 등단에 도전한 건 모험이자 용기였다. 때론 무용수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무언극도 한 편의 시가 되는 걸

느꼈고 배우들의 몸짓은 대도약하는 활자처럼 읽혔다. 나도 평자로서 사유를 체화하고 탐미하는 저 공연예술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보니 참, 어가에 쌓인 눈 녹아 가는 나의 삶도 물비린내 가득한 지하 공연장에서 가까스로 상연하는 어리숙한 초연작 같다.오늘의 당선에 머무르지 않고 더 성장해야만 이 값진 ‘공연’이 재연을 넘어 살아가는 내내 무대에 오를 겨를이 된다.

이제 나는 수년간 부르튼 호명에 보답한 겨울의 은유가 조금은 좋아졌다. 눈 내리는 그것은 시리고 아름답우며, 혹독하지만 품 안에 든 자를 언젠가 거두어 주므로...

솔직함은 세련됨 넘어서는 미학 된다

최근 우리 시단의 시가 좋아졌다. 문예지에 발표된 시들의 수준이 높아졌고 보기 아까운 시집들도 부쩍 늘었다. 80년대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시의 시대가 온 느낌을 받는다. 좋은 일이다.

시 정신의 핵심이 기존질서, 미학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결코 녹녹하지 않은 시간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또 한 번 우리 시가 인간의 꿈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선자의 손에 ‘연초록, 순정’의 4편, ‘크리스마스 편지’와 4편, ‘사람들은 더 이상 비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와 4편, ‘처마 끝에는 놓아주는 손이 있어’와 4편의 시가 남았다. ‘처마 끝에는...’의 경우 고드름에 대한 은유가 좋았다. 평범한 사물들에서 삶의 꿈을 기다리는 여유가 느껴졌다.

전체적인 시의 수준이 아쉬웠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비유를...’의 경우 아주 쉬운 언어로 삶의 순간순간을 볼드는 지해가 느껴졌다. 이 쉬운 언어로 더 깊고 신비한 꿈을 노래할 수 있다면 이 분의



곽재구 시인

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물할 것이다. ‘크리스마스 편지’와 ‘연초록, 순정’, 최종 결정을 하는데 난해함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편지’는 연필로 새긴 따뜻한 인간의 약속이 설렘을

내과 그 약속의 주인이 되는 느낌이었다. 시가 인간에게 꿈과 약속을 선물할 수 있다면 최고의 가치일 것이다. ‘연초록, 순정’은 평이하고 뜻뜻한 언어로 고향 마을의 추억을 새긴다.

출근길 전철 안에서 불러들인 대숲 속 푸른 창공은 힘든 시절을 이겨내는 따뜻한 용기다. 그대가 제 인생의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아마추어적인 진술이 최종 당선작을 결정짓는 추가 됐다. 솔직함은 종종 세련됨을 넘어서는 미학이 될 수도 있다. 대숲 속에서 바라보는 푸른 창공 같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시의 주인이 되길!

범상치 않은 상상력...끝까지 긴장 유지

예상보다 많은 응모작에 놀랐다. 사회의 어둠과 우울한 단면, 파박한 일상에 서 겪는 아픔과 상처를 담아낸 작품들이 현실을 들여다보는 거울 같았다.

‘문장의 집’은 꿈이 없는 사람이거나 누군가의 엄마, 아직 끝나지 않은 내력을 가진 입주민을, 집주인이 문장으로 선발하겠다는 기발한 조건과 매력적인 제목이 눈에 띄었으나 주제가 뚜렷한 만큼 깊이에 억눌린 흔적이 역력했다. ‘표류’는 안정된 문장과 상어라는 존재가 의미하는 알레고리에 주목했으나 불행한 가족사를 짧은 구성에 집약적으로 제시하려다 보니 아쉬움이 남았다.

‘검은 우화’는 배후 조종에 의한 그리기로 진실을 추구하는 행적을 드러냈는데 날개가 돌아 성총으로 진화하는 별레를 통해 성장을 위한 아픔을 기록하겠다는 의지가 선했다. ‘원숭이 인간’은 오랜 수련을 집착하게 하는 유려한 경이체 문장에다 진화생물학의 낯설고 웅혼한 화제를 범상치 않은 상상력과 한 발짝 비껴보는 발상으로 소화해냈다. 결말을 암시하지 않은 채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



정강솔 소설가

는 가운데 조각을 통한 창조, 행위가 분열이나 갈등이 아닌 화해의 모색이라는 작가의 의도로 이어졌다는 게 단연 돋보였다. 두 작품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다. ‘검은 우화’는 신춘문에 당선 공식을 알고 쓴 것 같은 구성과 문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나 아이라니하게도 무결점이 신선함을 떨어뜨리는 부단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원숭이 인간’은 결말을 향해 도도하게 치닫는 긴장감을 유지한 채 진화적 화소라는 원형을 새로운 상상력으로 덧칠하여 시선을 끌었다는 점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상상력은 작가가 마땅히 펼쳐서 수행해야 할 과제이고 소설은 결국 새 이야기에 대한 도전의 역사라는 점에서, 신인의 참신한 시도를 기다리는 신춘문에 의 취지에 부합한다 여겨 ‘원숭이 인간’을 당선작으로 뽑았다. 작가의 역량을 믿고 대성을 기대한다.

비평 언어 풍요롭게 확장...장르 횡단을

예년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난 평론 응모작들이 반가웠다. 문학평론은 그중 절반 정도였다. 문학평론의 경우, 기존 비평들의 해석과 차별화되는 입사각은 부족해 보였다. 비-문학 장르 평론의 경우, 현재 세계를 신유물론 철학으로 재사유하는 메타적 문법의 글들이 많았다.

휴머니티가 등장하는 만화시리즈를 통해 AI 시대의 휴머니즘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점검한 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과 영화를 교차 검증한 글은 인간세계를 묵시록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간-행위자를 비판의 심문장에 회부했다는 측면에서 값진 성과들이었음을 밝혀둔다.

김지원 씨의 ‘만화 체인소 맨의 탈-경제적 잡식성’은 앞선 아쉬움을 일거에 해소하는 글이었다. 작품 분석과 이론의 적용이 과잉되지 않으면서 비판의 논점을 유지하는 긴장감도 놓치지 않았다. 시대와 불화하는 해당 장르의 기형적인 소비구조를 비판하는 비평가적 안목도 인상적이었다. 그 중 식인 행위에 대한 담론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비평으로 확장



김영삼 평론가

되어도 충분해 보였다. 다만 해당 담론이 다른 장에 더 어울려 보이는 구성의 어긋남과 글의 주제를 보편성의 차원으로 설득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이 아쉬

한 고려의 대상이었다. 고심 끝에 최지안 씨의 ‘몸의 언어가 자신만의 인도를 관찰할 때: 광주시립발레단 DIVINE’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글의 미덕은 작품의 공간 언어와 물질 언어들이 정치적 정동으로 번역되는 과정을 놓치지 않고 비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몸 언어의 패권’을 반-언어적으로 표현한 극의 (무)언어를 절제되고 날카로운 비평의 언어로 각인한 데에 있다. 다만 해설의 변증법과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을 차용한 설명은 좀 더 치밀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럼에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다양한 장르를 횡단할 것을 믿으며 축하의 말을 전한다.